

현안과 과제

최근 통상 환경 악화와 대응

Executive Summary

□ 최근 통상 환경 악화와 대응

■ 최근 통상 환경 악화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조치가 강화되면서 우리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와 특허 관련 소송들이 늘어나고 있다. 삼성 등 글로벌 기업에 대한 특허소송도 증가하면서 통상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 최근 통상 환경 악화의 배경

첫째, 유럽재정위기로 인한 세계 경기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글로벌 교역이 둔화되었다. 2012년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로 교역 증가율이 급락하면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둘째, 한국산 제품에 대한 각국의 견제가 심화되었다. 우리 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인 품목은 2002년 49개에서 2010년 131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특히 삼성, LG, 현대 등 주요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이들 기업에 대한 견제가 심화되고 있다. 셋째, 대외개방 확대에 따른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이전보다 강화되었다. FTA 등을 통한 대외개방의 급속한 확대에 관세장벽이 낮아지면서 각국은 자국의 취약 산업과 기업의 보호를 위해 반덤핑이나 통관 절차 강화 등 비관세장벽을 높이고 있다. 넷째, 글로벌 특허 출원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국제 특허 출원 경쟁이 심화되면서 주요국들의 특허를 둘러싼 마찰이 심화되고, 우리 기업을 상대로 하는 특허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 시사점

향후 세계 경기의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움직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이로 인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첫째, 통상 환경의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출 경기의 위축이 우려된다. 최근 무역제한조치의 증가로 직접적인 수입감소효과(30억달러)와 특허 소송에 따른 부담비용(19.1억달러)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약 49.1억달러 정도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각국의 우리 기업에 대한 보호무역주의 조치 강화에 따른 우리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 지적재산권 및 특허권 소송의 증가로 글로벌 수출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주요 기업들의 고용과 투자마저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 셋째, 수출 경기가 위축되고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가 지속될 경우, 국내 경기 회복 지연과 경제성장을 하락시킬 우려된다.

■ 대응과제

먼저 정부차원에서는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규제 예상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역내 분쟁해결기구의 설립 등 보호무역주의를 지양하는 국제 공조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기업들은 대상국의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통상 관련 인력을 확충하고 수출유관기관들과의 정보 공유를 통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 최근 통상 환경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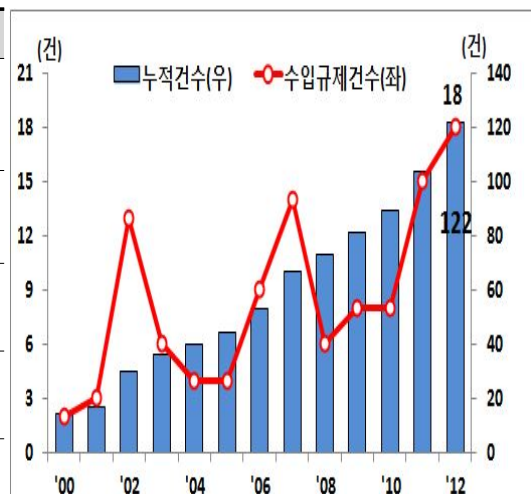
- (현황)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에 대한 특허 소송 및 수입규제조치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통상 환경이 악화되고 있음
 - 최근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기업에 대한 특허 소송 및 무역분쟁과 수입규제조치 등이 강화되고 있음
 - 삼성전자의 경우 애플과의 최근 특허소송에서 최대 10억 5,000만달러(1조 2,000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9개국에서 총 50여건 소송 진행 중¹⁾
 - 코오롱과 듀폰 간 특허소송의 경우 美 버지니아 지방법원은 코오롱의 아라미드 섬유에 대하여 향후 20년간 전세계 생산·판매 금지 판결과 함께 영업이익의 4배에 달하는 9억 1,900백만달러(1조 1,500억원) 배상을 판결²⁾
 - 국내 제품에 대한 반덤핑 등 수입규제건수도 2012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수입규제 장벽이 높아지고 있음
 - 2000년 14건에 불과하던 우리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해마다 증가하여 2012년 10월 현재 총 122건(누적)을 기록
 - 국가별로는 2012년 현재 인도가 23건으로 가장 많고 중국(17건), 미국(12건), 브라질(9건), 러시아(7건) 등의 순임

<주요국의 한국 기업에 대한 규제 및 소송 사례>

| 제소국 | 내용 |
|-----|--|
| 미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전자의 휴대폰 디자인 특허 침해 - 코오롱의 신소재 생산기술 특허 침해 - 한국산 세탁기 반덤핑 예비판정 |
| EU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전자의 반독점법 위반 - 프랑스 정부의 한국산 자동차 수입규제 '우선감시' 요청 |
| 브라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기아차 등 수입차 공업세 인상 - 한국산 강판, 나일론 타이어 등 3개 품목 반덤핑조사 |
| 중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 태양광 폴리실리콘 반덤핑조사 - ECH 반덤핑관세 5년 연장 - 한국산 광섬유 추가 반덤핑 조사 |
| 인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 페놀 반덤핑 관세 폐지 지연 - PVC 서스펜션 반덤핑 관세 유지 |

자료 : 코트라, 내외신 종합.

<국내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추이 >



자료 : 무역협회.

1) 2012년 『29차 위기관리대책회의 자료』

2) 내외신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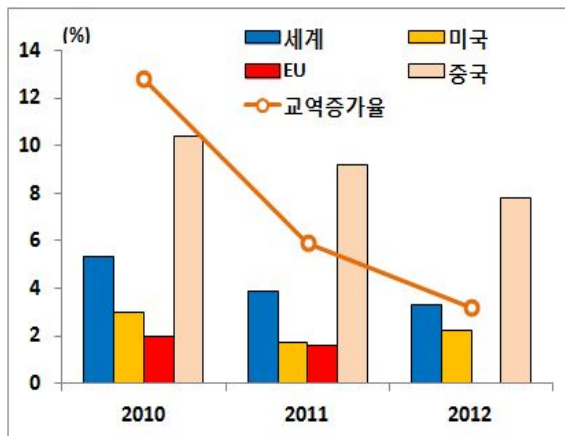
2. 최근 통상 환경 악화의 배경

1) 세계 경기 침체

○ 2012년 유럽재정위기로 인한 세계 경기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글로벌 교역량 증가율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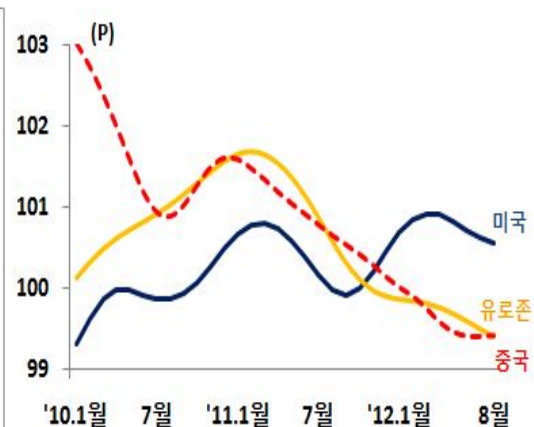
- 글로벌 성장률 둔화 지속과 그에 따른 교역 증가율이 급감하면서 자국의 경제와 산업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 강화
 - IMF에 따르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2010년 5.1%에서 2011년 3.6% 그리고 2012년 3.3%로 하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 유럽의 경제성장률은 2011년 1.4%에서 2012년 -0.4%를 기록하고, 중국은 2011년 9.2%에서 2012년 7.8%로 성장률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이러한 경제성장률의 하락으로 인해 각국에서는 자국 산업이 쇠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입을 규제하는 등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강화
- 주요국들의 경기선행지표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어 경기 둔화 지속에 대한 우려가 자국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려는 정책 증가
 - 경기선행지수의 추이가 2011년 이후 유럽과 중국의 경우 하락세를 지속하여 향후 경기둔화 지속에 대한 우려가 커짐
 - 미국의 경우 상반기 경기선행지수가 상승했으나, 하반기들어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냄에 따라 미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재고조
 - 선진국과 신흥국의 성장세가 동반 침체되면서 글로벌 수요 감소에 따른 교역량 증가율 감소 지속

< 성장률 및 교역량 증가율 추이 >



자료 : IMF.

< 주요국 경기선행지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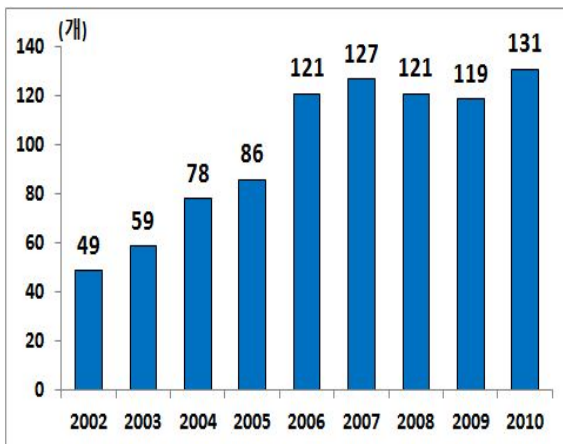
자료 : OECD.

2) 한국산 제품에 대한 견제 심화

○ 국내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세계시장점유율 1위인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각국의 견제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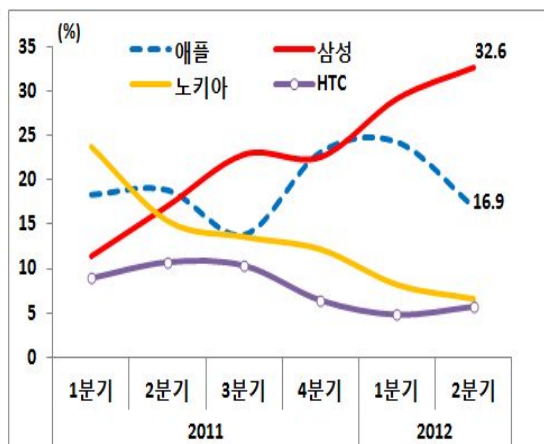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일류상품 중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인 품목은 2002년 49개에서 2010년 131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현재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는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인 품목은 총 131개이며,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에 드는 품목을 포함하면 405개임
- 세계시장점유율 1위 상품 중 대기업 제품은 59개이고 중소기업 제품도 72개에 이르며, 세계 5위 이내에 드는 274개에 달하는 바, 총 405개의 제품이 세계시장에서 일류제품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있음
- 삼성, LG, 현대·기아차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로 세계 시장 점유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견제 심화
- 애플과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의 최근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은 2012년 2분기 현재 32.6%로 애플의 16.9%를 크게 앞지르고 있음
- 최근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TFT-LCD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LG필립스 LCD가 각각 16.3%로 세계시장 점유율에서 공동 1위를 기록
- 한편 유럽재정위기 속에서도 유럽에서 현대·기아차의 시장점유율은 지난 8월 기준으로 6.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 세계 점유율 1위 국산 제품 수 추이 >



자료 : 지식경제부

< 최근 스마트폰 세계 점유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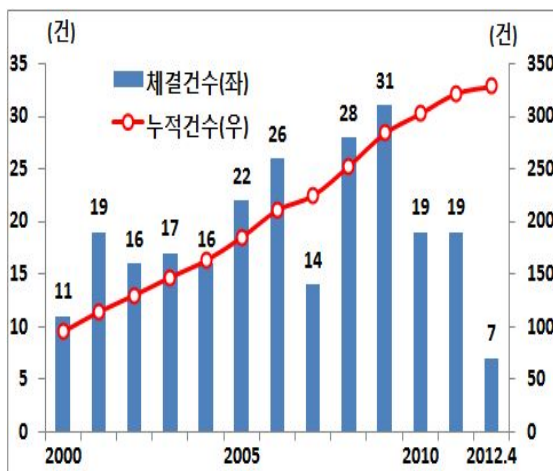
자료 : IDC.

3) 무역개방 확대에 따른 비관세장벽 강화

○ FTA 등의 확산으로 대외개방 확대에 따른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이전보다 강화

- FTA를 포함한 국가 또는 지역간 자유무역협정(RTA)의 체결이 증가하면서 각국의 개방이 이전보다 확대되고 있음
 - 지역무역협정(RTA)의 발효건수가 현재 329건으로 5년전인 2007년의 225건에 비해 100건이 증가했고, 특히 1995년 WTO 출범이후 311건이 체결됨
 - FTA 등 상호관세를 철폐 또는 인하하는 조치의 확산으로 각국의 대외무역에 대한 개방이 급격히 확대
 - 관세 장벽이 사라지면서 각국은 자국의 취약 산업과 주력 기업의 보호를 위해 무역구제조치나 위생·식물위생조치 및 무역 관련 기술장벽(SPS & TBT) 등의 비관세장벽을 강화
- 무역자유화 정도를 나타내는 무역자유지수도 하락추이를 보이고 있어 비관세장벽에 의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 미국 등 선진국과 중국 등의 신흥국 모두 2012년 들어 무역자유지수가 이전보다 하락하거나 정체되고 있음
 - 이는 갈수록 무역 개방이 확대되는 가운데 각국의 비관세장벽을 통한 보호무역성향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여줌

< 지역무역협정(RTA) 발효 추이 >



< 무역자유지수 추이 >

| 구 분 | | 2010 | 2011 | 2012 |
|-----|-----|------|------|------|
| 선진국 | 미국 | 86.9 | 86.4 | 86.4 |
| | 일본 | 82.4 | 82.6 | 81.8 |
| | 독일 | 87.5 | 87.6 | 87.1 |
| 신흥국 | 중국 | 72.2 | 71.6 | 71.6 |
| | 인도 | 67.9 | 64.2 | 64.1 |
| | 브라질 | 69.2 | 69.8 | 69.1 |

자료 : WTO.

자료 : The Heritage Foundation.
 주 : 경제자유지수를 구성하는 항목 중 무역자유지수만을 제시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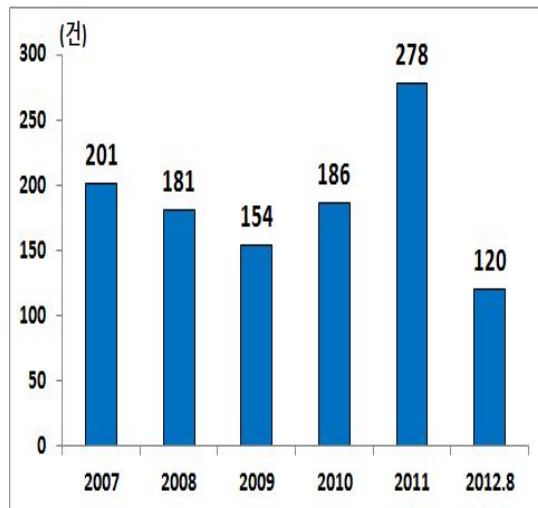
4) 글로벌 특허 출원 경쟁의 심화

- 글로벌 특허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 등 주요국들의 특허 출원 건수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
 - 전세계 특허출원건수는 2010년 16만여건에서 2011년 18만여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2012년 7월 현재 11만여건을 기록³⁾
 - 미국의 특허는 2012년 현재 28만여건으로 세계 1위를 차지. 일본도 24만여건으로 2위를 차지했고, 중국은 특허 출원이 크게 증가하며 3위로 도약
 - 우리의 특허출원도 증가세를 보이며 5위를 차지하였으나, 글로벌 특허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출원 비중은 이전 보다 소폭 감소
- 해외시장에서 약진하고 있는 국내기업에 대한 해외기업들의 특허 소송이 늘어나면서 분쟁 건수도 2009년 이후 해마다 증가 추세
 - 국내기업과 해외기업간 특허 분쟁 건수는 2009년 154건을 기록한 이후 2010년 186건, 2011년 278건으로 80.5%나 급증했고, 2012년 8월까지 120건을 기록하고 있음
 - 그러나 2011년 종결된 소송 25건 가운데 우리기업은 19건을 패소해 승소율이 24%에 불과하여 수출기업의 소송에 따른 피해가 심각함⁴⁾

< 주요국 국제특허 출원 건수 및 비중 >

| | 2010 | 2011 | 2012.7 |
|---------|---------------|---------------|---------------|
| 미국 (1위) | 45,027 (27.4) | 49,051 (26.9) | 28,231 (26.1) |
| 일본 (2위) | 32,150 (20.0) | 38,874 (21.3) | 24,978 (23.1) |
| 중국 (3위) | 12,296 (7.5) | 16,402 (9.0) | 9,781 (9.1) |
| 독일 (4위) | 17,568 (10.7) | 18,852 (10.3) | 10,745 (9.9) |
| 한국 (5위) | 9,669 (5.8) | 10,447 (5.7) | 6,095 (5.6) |
| 세계 | 164,336 | 182,354 | 108,055 |

< 국내기업과 해외기업간 특허분쟁 추이 >



자료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주 : PCT에 의한 특허출원 자료임.

자료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3)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특허출원건수만을 제시한 것임.
 4)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3. 시사점과 대응과제

- (시사점) 세계경기의 회복세 지연으로 수입규제 등 통상 환경의 악화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국내 수출부진세가 지속되고 수출 기업의 수익성 악화 등으로 경기 회복세 지연이 우려됨
 - 최근 IMF는 2013년 세계경제성장률을 3.6%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보호주의적 통상환경이 지속 또는 심화될 우려
 - 수출 및 대외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지닌 우리 경제의 특성상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는 국내 경제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
 - 수출 부진 심화 : 무역제한조치와 특허 소송 등으로 수출기업들에 대한 제약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인 수출 경기의 위축이 우려
 - 2012년 수출증가율은 현재 -1.6%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대외 수요 감소와 함께 통상 환경의 악화로 향후 수출 경기 회복이 더욱 지연될 가능성

○ 최근 통상 환경 악화에 따른 수출기업의 직·간접 피해액 추정

- 최근 반년사이 통상 환경 악화로 수출 기업의 수출 감소 효과와 특허 소송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를 고려하면 약 49.1억달러의 피해가 추정됨
- (수출 감소 효과) 전세계 무역제한조치의 증가로 우리 수출 기업들의 피해 노출액은 약 30억달러로 추정
 - 최근 7개월('11.10월~'12년 5월) 신규 무역제한조치로 전세계 수입액의 0.9%가 영향⁵⁾을 받고 있으며 이는 약 948억달러에 해당
 - 우리나라의 전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3.2% 수준이며, 따라서 무역제한조치로 우리 기업들의 피해노출액은 약 30억달러로 추정⁶⁾
- (기업 부담비용 증가) 국제 특허 소송 1건당 평균 비용이 300만달러⁷⁾이고 2002~2009년 사이 미국 특허관리전문회사(NPE)에 의한 평균배상액은 1,290만달러임⁸⁾. 2012년 8월까지 우리 기업에 대한 글로벌 특허 분쟁이 120건임을 고려할 때 부담 비용은 약 19.1억달러로 추정

5) WTO, Trade Policy Review 2012. 6. 28.

6) 무역협회, 세계 및 한국 무역통계.

7) 국가정책조정회의자료,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동향 및 대응방안” 2012.9. 28.

8) PWC, “The Continued evolution of patent damages law”. 2010.

- 수출기업 수익성 악화 : 지적재산권 및 특허권 소송의 증가로 국내 수출기업들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고용과 투자의 위축이 우려
 - 이외에도 특허 소송이나 지재권 침해 등으로 신제품의 판매가 금지되거나 해당 제품의 브랜드 이미지 하락 등의 부가적인 피해 발생
 - 특허 소송 등으로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가 지속될 경우 산업에 대한 투자와 고용이 위축될 우려

- 경기 회복세 지연 :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로 인해 수출 회복세가 지연되고,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가 지속될 경우 국내 경기도 회복이 지연되고 성장률 하락도 우려됨
 - 최근 IMF에 따르면 2013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3.6%로 전망되나 보호무역에 따르는 수출 부진과 고용 및 투자 위축으로 전망치보다 낮아질 가능성 존재

- (대응과제) 통상 환경 악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과 개별 수출 기업들 차원의 맞춤형 대응 노력이 필요함
 - 정부 차원 : 무역분쟁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규제 예상 품목을 별도 관리하는 한편 보호주의를 지양하는 국제 공조 시스템 강화
 - 각국의 보호무역조치에 따른 무역분쟁 방지를 위한 사전 조정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WTO 무역구제조치 등을 통한 대응 시나리오를 지역별, 품목별로 마련해야 함
 - 수입규제를 받고 있거나 새롭게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출 품목들을 별도로 특별 관리하고, 코트라 등을 통한 정보수집 및 무역규제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
 - 한편 APEC, G20과 같은 지역협력체에서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는 분쟁해결기구 등을 설립하는 등 국제 공조 시스템을 강화
 - 주요 해외공관에 무역분쟁 담당관을 확충하고, 정부간 협의 채널을 구축하여 특허 분쟁 및 통상 마찰을 사전에 방지
 - 기업 차원 : 대상국의 규제 조치에 대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통상 관련 인력을 확충하고 수출유관기관들과의 정보 공유를 통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수출 대상국가의 보호무역조치의 특성을 파악하는 한편, 기존의 수입규제조치와 주요 대응 사례 연구를 통해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
- 코트라, 무역공사와 같은 유관기관들과의 무역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전 대응 체계를 마련
- 무역분쟁과 관련한 전문 인력들을 확충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기술력과 국제경쟁력을 확보
- 기체결된 FTA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무역 장벽이 높아질 것에 대비하여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함

경제연구본부 최성근 선임연구원 (csk01@hri.co.kr, 2072-6223)

<참고> 유형별 최근 보호무역조치 사례

| 보호무역조치 | 국가 | 내용 |
|------------------------|--|--|
| 관세 인상/ 차별적특별세 | 러시아 | 데스크톱, 컴퓨터, 노트북, 올인원컴퓨터 등 관세인상 논의 중 |
| | | 9월 1일부터 외국산 차량에 폐차처리비용을 사용세로 징수 |
| | 브라질 | 8월부터 컴퓨터 핵심부품 관세인상 2015년까지 적용 |
| | | 4월 종료예정 수입자동차 대상 공업세 인상분 (30%) 5년간 추가 연장 |
| | | 9월 26일부로 종이, 가국, 유리 등 100개 품목 수입관세 인상 |
| 멕시코 | 8월 1일부터 286개 철강 품목에 대한 3% 관세 재적용 | |
| 베트남 | 6월 11일부터 재정부시행령에 따라 스테인리스 스틸 수입 관세10% 부과 | |
| 수입절차강화 | 요르단 | 7월 1일부터 수입가능 중고자동차 연식 5년 이내로 제한 |
| | 이란 | 7월말부터 우선 수입품목군 1-2등급 품목군만 수입 L/C 개설 허용 |
| | 카타르 | '11년 4월부터 통관 시 제출서류 원본 요구 |
| | 아르헨티나 | 1월 10일 아르헨티나로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한 수입자의 사전수입신고제도 도입 |
| | 베트남 | 9월 20일부터 철강수입업자는 취급제품 산업무역부에 등록 필수 |
| | 오만 | 하반기 자국산 활용도(Made in Oman Index) 석유개발프로젝트 입찰심사 시 반영 |
| 자국산사용 의무화 | 크로아티아 | 크로아티아 전력청 현재 진행 중인 발전소 발주에 국내기업과의협력 수준 평가기준으로 도입 |
| | 이탈리아 | '11년 6월 1일부터 태양광모듈 설치 시 EU역내 생산 부품 사용시 Buy European 보조금 지원 |
| | 프랑스 | 7월 27일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발전차액지원과 업체 선정기준을 자국인증서 취득기업에 유리하게 변경 |
| | EU | 8월 3일 프랑스 EU에 한국산 자동차 수입 모니터링 요청, EU집행위원회 대변인 검토 중임을 밝힘. 6월 26일 한국산 강철로프에 대한 덤핑혐의 조사 착수 |
|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 대만 | '11년 7월 대만 제지협회 한국 중국 일본 핀란드산 코팅지에 반덤핑 제소. 올 하반기 최종 결정 예정 |
| | | 7월 16일 대만스테인리스강제조업체 YUSCO와 TANG ENG 한국포함 4개국 제품에 반덤핑 제소 신청서 제출 |
| | 미국 | 8월 23일 한국산 변압기(용량 60,000KV 이상 유압식) 반덤핑관세 부과 |
| | | 5월, 7월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상계관세 및 반덤핑 예비판정 |
| | 브라질 | 한국산 타이어 및 나일론 사 대상 덤핑혐의 조사중 |
| 아르헨티나 | 4월 23일 플로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반덤핑 조사 개시 | |

| 보후무역조치 | 국가 | 내 용 |
|----------------------------------|--|---|
|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 인도 | 3월 한국산 페놀에 대한 반덤핑 관세 폐지를 결정했으나 시행 보류 |
| | | 2월 10일 PVC 서스펜션에 대한 반덤핑 과세 유지 |
| | | 5월 무스프탈산 2차 반덤핑조사 결과 확정 |
| | 중국 |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에 대한 추가 반덤핑세율 인상을 위한 반덤핑 조사 진행 개시 |
| | | 7월 20일 한국산 태양광 폴리실리콘 반덤핑 조사 개시 |
| | | 6월 27일 ECH 반덤핑관세 부과기간 5년 연장 결정 |
| | | 6월 23일 비스페놀 A 한국 등 4개국 대상 일몰재심 실시 |
| | 캐나다 | 7월 23일 한국산 발전기용량(60,000KV 이상 유압식) 반덤핑 예비판정 |
| | | 8월 13일 한국 포함 7개국 탄소 강관에 대한 예비판정에서 잠정 관세 부과 |
| | 터키 | 5월 16일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 반덤핑 관세 연장 확정 |
| 상반기 성냥, PET 등 2개 품목 세이프가드 품목에 추가 | | |
| 파키스탄 | 2월 한국산 Formic Acid에 대해 44.1% 덤핑관세 부과 확정 | |
| 호주 | 6월 28일 한국산 pvc수지에 대한 잠정관세 5.4% 부과 | |
| | 6월 15일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및 대만산 열연 코일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 |
| 식품안전규제 | 홍콩 | 8월 8일부터 한국산 분유의 요오드 함량 부족을 이유로 소비자에 섭취 중단 권고 |
| 반독점법위반 | EU | 1월 31일부터 삼성전자를 FRAND 위반혐의로 조사 중. 독점지위남용으로 결론 확정시 판매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 부과가능 |
| 가격담합조사 | 미국 | 2차전지 제품 가격담합 여부 조사 중 |
| 외환규제 | 아르헨티나 | 2012년부터 T/T 거래 규제. 현지 바이어가 중앙은행 승인을 받아야 송금 가능 |

자료 : 코트라.